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보석은 눈뜨고 있지 않다. 잠자고 있다. 잠자면서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 보석의 잠은 그대로가 꿈이다. -김훈수 산문시 '경인구(警人句)'에서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3

2008년 3월 1일
제 264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곽선영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News Focus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략)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중략)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



의 기본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손잡고 더 진취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계발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 시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실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략) <관련기사 5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言論人葬’ 모든 회우에 확대

이사회 의결, 임원 선임규정도 개정

그동안 일부 특정 회우에게만 허용돼왔던 ‘대한언론인회 언론인장’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회우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영예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언론인회는 2월 21일 새 집행부 출범 뒤 처음 열린 제 116차 이사회에서 조창화(趙昌化) 회장 주재로 신설 ‘작고회우 장례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작고 회우 장례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유나 유족의 반대가 없는 한 작고 회우 전원을 대상으로 ‘대한언론인회 언론인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결식장에 회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고 본회 명의의 근조 현수막을 설



· 본회 趙昌化 회장이 새 집행부 상견례에서 예산확충·회원 배가운동 추진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회장선출은 과반 아닌 종다수로

선거공고 뒤 입회자 투표권 없어

치하는 한편 본회 후생복지규정에 따른 조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사집행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임원 선임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우 과반수의 찬성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지명, 각 후보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거당일 결선투표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차후 재선거를 실시한다면 과열·혼탁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회비 장기 미납자와 선거공고 뒤 입회한 회우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신입회우 7명의 가입을 승인하고 회비 장기 미납자와 주소 불명인 회우 4명을 수첩에서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관련기사 3, 4, 6면>

“회우 배가·예산확충 적극 추진”

조 회장, 새 집행부 상견례서 강조

대한언론인회는 지난달 5일 새 집행부를 소집, 조창화 회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가졌다. 회장단과 이사·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조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역설했던 예산확충과 회우 배가운동의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회우들의 친목과 후생복지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회보 ‘대한언론’의 광고마케팅 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회우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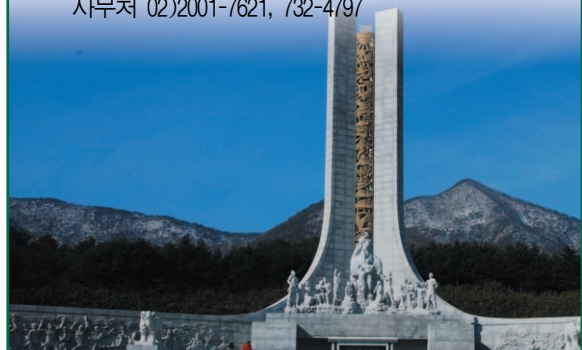
알림

봄 야외 수련회

(4월 17일 계룡대·현충원)

계룡대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아십니까? 봄 야외수련회를 4월 17일(목)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와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서 갖고자 합니다. 명단제출 관계로 미리 참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때 : 4월 17일(목)
 - 곳 : 계룡대와 대전 국립현충원
 - 출발 : 오전 8시 30분 프레스센터 앞
 - 신청 : 3월 17~18일(80명 신청순)
- (업무 관계로 기간 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무처 02)2001-7621, 732-4797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Column & Bulletin

④

· 새 정부 언론정책을 注視한다(時論)

Focus

⑤

· 이명박 정부 출범

Opinion & Poetry

⑧~⑨

· 송례문 소실을 뜻한다

Tour

⑩

· 남도의 봄꽃축제

History & He-story

⑪

· 5·16前夜

www.gg.go.kr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M y T o w n M y G y e o n g G i

풍요로운 대한민국 3만불 시대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을 엽니다

대한민국 성장률보다 두 배를 앞지르며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성장 엔진 경기도-

IT · BT · NT 등 첨단 지식산업을 선도하며 전국 일자리의 60%를 만들어 낸 곳,
경기도가 이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3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

평화와 희망의 땅

산업경제중심

세계 최대 IT · NT · BT 산업

친환경 첨단농업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溫故知新

‘抗命’과 리더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하는데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예비인가대 학을 발표하는 ‘항명(抗命)’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조직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대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대통령임기 20여일을 앞두고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레임덕’현상으로 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여당(與黨)내 항명은 여러 번 있었다. 공화당 집권시절인 1969년 4월 권오병(權五柄) 문교부장관 해임결의안, 1971년 10월 오치성(吳致成) 내무부장관 해임결의안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부결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당에 동조하여 가결시켰던 것이다. 항명에 가담한 의원들이 제명되고, 주동 의원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출당(黜黨)되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정부조직 안에서 대통령에 항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내 항명이 자주 일어났다. 2003년 3월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 인사에 평가 사들이 반발하자, 노 대통령이 검사들과 마주앉아



윤기병

- 본회 회우
-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 LA한국문화원장

토론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토론분위기가 거칠어 지자 대통령 입에서 “이쯤 되면 막가지는 거지요”라는 말까지 나왔다.

2006년 6월 김근태(金謹泰) 복지부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공개문제를 놓고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이색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조직은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살기 위해 만든 사회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조직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추 기간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조직구성원은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정부조직의 능률적 운영과 공무원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을 쓰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의 인사야

말로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격언의 교훈을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모든 인사를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업적을 남긴 정부는 시대적 상황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사람을 잘 쓴’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가 30%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코드’ 인사 때문이었다고 본다. 코드인사는 한마디로 경륜이나 능력보다는 정치 색깔이 맞는 사람들을 주로 기용한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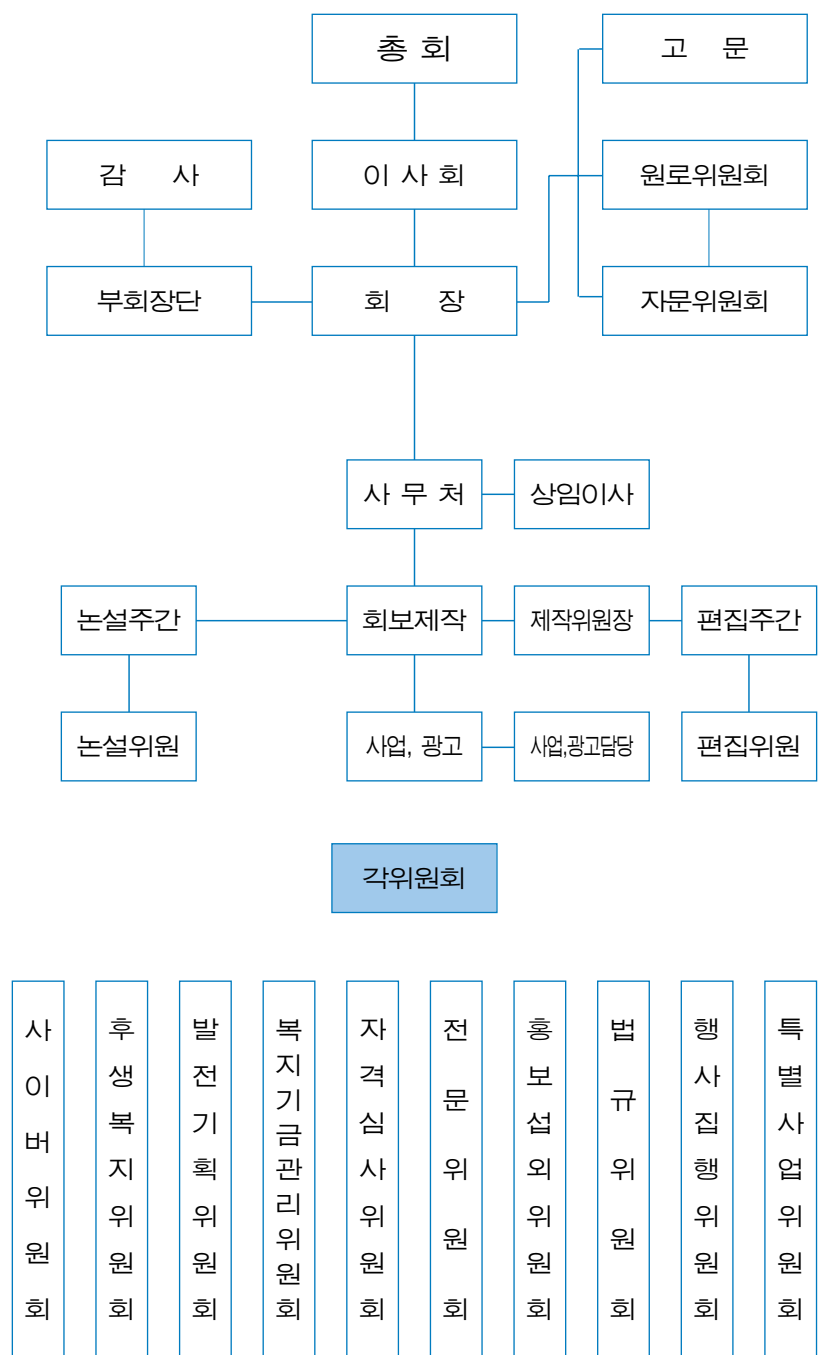
이번 항명으로 물러난 김신일 장관이 ‘코드’인사에 해당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5년간 정부 인사에 대한 총평으로 나온 얘기일 것이다.

사람을 잘 선택하여 그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는 것이 곧 ‘리더십’이라고 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정부안에서 대통령에 항명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 것은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년을 통해 우리 국민은 다시는 이런 리더십 없는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7]

大韓言論人會 기구표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 발전기획위원회

박기병(위원장) 장두원(간사) 김 철 문준호 송충섭 안광식 오전식 오관룡 이용호 임응식 임흥빈 지갑종

△ 복지기금관리위원회

박명근(위원장) 김건이(간사) 김영호 김진기 박영식 신광식 신현구 이성호

△ 법규위원회

조재린(위원장) 김세경(간사) 공대식 구월환 김선기 김종열 도준호 이세환 이승남

△ 사이버위원회

조봉균(위원장) 김상수(간사) 김승웅 이대영 조천용 최금녀 한중광

△ 원로위원회

계성일 고재봉 김경래 김귀제 곽노형 곽찬호 구분건 김병석 김상현 김용수 김운덕 김윤진 김일택 김정한 김진섭 김 집 김태운 김 호 나필성 동홍석 문제준 문제안 민규호 민 기 박문송 박영식 박영래 박재권 박정하 엄기형 오정수 오관룡 우경식 유성렬 유승택 유일연 윤임술 윤주영 이귀암 이명동 이석흥 이운수 이지웅 이해복 임기호 임인흡 임학수 장기봉 정기백 정문식 정범태 정용식 정재도 정준모 조동표 조성국 주영관 주효민 지갑종 지연흥 최덕모 최무룡 최병욱 최원각 최일영 한영섭 현영근 현준건 호현찬 <69명>

△ 자문위원회

김명구 김성진 김영일 김재영 김종하 김준하 김호기 남재희 박권상 박 실 박현태 백인호 손일근 손주환 신경식 안병훈 윤주영 이순기 이웅희 이자현 이태교 이한수 이 형 임흥빈 조남조 조용중 정구호 한영섭 황대연

△ 자격심사위원회

안평선(위원장) 민정기(간사) 김담구 김한구 김한봉 김 호 이창호 정희준 최상목

△ 전문위원회

정형수(위원장) 조덕연(간사) 성낙오 성재삼 송정제 엄종석 이병대 천승준 조두흠

△ 특별사업위원회

김종범(위원장) 윤기로(간사) 김호곤 위상욱 이상갑 이상우 이우진 이태영 천상기 최상완

△ 행사집행위원회

정운종(위원장) 이상호(간사) 김정기 나용경 박석흥 여구만 오동환 이달영 이창열 임상학 장석훈 정진철

△ 홍보섭외위원회

신동식(위원장) 김두호(간사) 금창태 김석성 박화진 백인호 송경섭 안성열 오근영 정기정 정웅고

△ 회보제작위원회

이배영(위원장) 이대영(편집주간) 편집위원 : 김선기 백일진 심재복 이규섭 정준창 지용우(논설주간) 논설위원 : 고두현 고헌용 구종서 김경래 김영수 김재영 김진배 김춘빈 김태선 김해도 김 화 남시욱 박경석 배병후 송두빈 송효빈 신동호 신상현 안성열 여영무 윤석웅 이광영 이병국 이선희 이인원 이재승 이종식 이준기 이재주 이청수 이태영 이현구 이 형 정병고 정운종 정재호 조규진 조용중 천승준 최병요 최서영 황대연

△ 후생복지위원회

박응철(위원장) 김의수(간사) 김성수 양성목 주종환 최무룡 한동희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가나다 순



• **김재근(金在根)** 회우
47년생. 조선일보 교열 부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우성A. 1동 1401호 (우 156-786) 전화 011-9302-2576



• **김시복(金時福)** 회우
44년생. 한국일보 사회 부차장, 문교부 대변인, 주일대사관 공보관, 국가 보훈처차장, 상허문화재단 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3-1 정아빌라 302호 (우 137-871) 전화 011-765-3430



• **김충수(金忠洙)** 회우
45년생. 조선일보 교열 부장, 어문조선 대표이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성북동 성남마을 벽산 첼시빌A. 510동 1503호(우 448-530) 전화 011-9915-2468



• **노재성(盧在成)** 회우
43년생. 동아일보-중앙일보 기자, 국민일보 전무-부사장, 대통령정부비서관, 종합유선방송위 사무총장-방송위원, 뉴스플러스 부회장.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신A. 101동 604호 (우 480-787) 전화 010-7743-5943



• **윤용호(尹用浩)** 회우
39년생.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내외경제 편집국장-상무이사.
서울 관악구 신림9동 1516-9 (우 151-895) 전화 011-9974-4314



• **이민희(李民熙)** 회우
41년생. 중앙방송 정치 부차장, KBS 도교특과원-경제부장-감사실장, 문화사업단 사장,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A. 15동 1302호 (우 121-774) 전화 019-690-7320



• **이용권(李容權)** 회우
46년생. 중앙일보 기자-조사부장, 국민일보 편집 부국장-제작국장, <주>스튜디오 대표이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은빛마을 611동 901호 (우 412-748) 전화 011-355-4002

새정부 언론정책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최서영

• 본회 회우
• 경향신문 논설위원
•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닳을 올렸다. 국회 의석의 여소야대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우여곡절을 겪는 등 파동이 있었으나,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정권을 잡은 새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산더미처럼 떠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정 of 난맥상을 바로 잡고 국가의 정통성과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이것 없이는 경제살리기도 선진국 진입도 모두 공염불로 허사가 되겠기 때문이다.

그동안 좌파정권들이 망쳐놓은 국정 of 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의 언론정책이다. “언론과의 전쟁”을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언론을 옥죄고 압박하기 위해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온갖 조치를 모조리 동원했다. 입법을 통해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제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더니 급기야 임기말에 이르러서는 “취재진 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공무원들에게 기자와의 접촉을 금지시켜 사실상 취재원을 봉쇄했는가 하면 각 부처의 기자실을 없애는 대못질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좌파정권이 저지른 이러한 국정 of 파탄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정치철학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를 통치했던 좌파 집권자들은 어떤 명분, 어떤 위장전술을 내걸었든 간에 그들의 본색은 역사발전을 계급투쟁으로 보는 교조적 유물사관의 신봉자들이었다. 퇴색한 이 낡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분법(二分法)으로 나누어 갈등을 증폭시켰다. 가

진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자본가와 노동자, 평화세력과 냉전세력, 외세 의존세력과 민족 공조세력,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등 그들 입맛대로 각계각층을 분열시켜 갈등과 싸움을 부채질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왔다. 시대착오적인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은 언론(특히 메이저신문)을 계급의 적(敵), 자기들의 정책을 방해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언론과의 전쟁”을 마치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이 가졌던 이와같은 허망하고 잘못된 이념과 국정 of 적폐를 일소하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을 심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는가, 그리고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자실 대못을 모두 뽑고 언론의 위상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문제는 기술적 측면의 지엽적 개선이 아니라 언론자유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

권력층의 건전한 視角이 중요 비판에 ‘대못질’로 대응해서야

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언론자유에 있다. 언론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치 두변(二邊)으로 구성된 삼각형이라는 말과 같이 명사(名辭)모순의 예에 불과한 난센스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과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 비판기능이다. 민주주의가 독재나 부패로 말미암아 잘못되지 않도록 언론은 늘 감시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때로는 대안 제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 때문에 언론과 정부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늘 긴장관계에 빠지게 되고 서로 대립과 견제를 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속성이고 언론의 속명이다. 우리는 거듭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지켜보고자 한다.

太平漫評

沈載福 본회회우



그릇이 거대하군요...

金炳琯 동아일보 전 회장 별세



동아일보 사장, 회장, 명예회장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지낸 화정 김병관(化汀 金炳琯) 선생이 25일 오전 9시 4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1934년 7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1985년 부사장, 1987년 발행인, 1989년 사장, 1993년 회장, 2001년 명예회장을 맡아 33년간 신문경영의 일선에서 민주언론 창달에 이바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제발 살맛나는 세상을...”



·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간지들의 社說모음

▷이명박 정부, ‘1% 프렌들리’에서 벗어나라(경향신문)=이 대통령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와 자신의 고향인 영남,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강남 소망교회 등의 사적 인연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인사를 강행해 느닷없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땅과 주택을 사거나, 소유주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까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구입한 ‘강남 땅·집 부자’들을 대거 중용함으로써 ‘강부자’ 신드롬까지 낳았다.

▷선진한국,국민성공시대를 완성하자(국민일보)=정치분야에서도 실용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고를 덜어주고 살맛나게 하는 실용정치로의 회귀를 요청했다.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구태정치가 없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李 대통령과 국민, 함께 先進化 이루자(동아일보)=불신은 사소한 데서

불거지기 마련이다. 엄정한 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장관 후보자는 과감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솔선해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성공시대’ 향해 출범한 이명박號(서울신문)=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자녀 국적 문제 등은 고위 공직자 검증의 기본이다. 이렇듯 여러 명이 문

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한다”는 결의를 앞세웠다. 세계가 선망해온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민주화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부심을 10년 만에 새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듣게 된 사실부터 역사의 일획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명박 시대(조선일보)=이명박 시대는 정상을 이탈한 것, 거꾸로 간 것, 사라진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기간이

용이란 바늘과 성심(誠心)이란 실로 그 분열을 꿰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과속하지 않고, 국회와 건전한 여론을 존중하며, 반듯하고 효율적인 인재를 널리 쓰면 한국호의 항해는 성공할 것이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부를 기대한다(한겨레)=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해 나가면서 한국이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아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닦할 것 없지만, 그것이 냉전시대 식 한·미 동맹 복원과 강압적 대북정책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맞는 기대와 우려(한국일보)=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또 대선 승리 이후 두 달 남짓한 ‘정권 인수기’에 끊임없이 강조해 온 그대로, 경제만은 확실히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특유의 추진력과 실용적 사고로 사회 곳곳의 침체한 분위기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일깨울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성장의 단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릴 것이라는 소박한 꿈이다.

경제살리기 기대 높지만 ‘고소영’ ‘강부자’ 신드롬 우려도

제가 된다면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나도 단단히 난 셈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5대 課業(문화일보)=이 대통령은 취임사 서두에서부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10년’과는 확연히 차별화한 역사 인식으로 대한민국 건국 60년사를 재평가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

어야 한다. 무엇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지는 오늘 이 대통령이 읽는 취임선서에 모두 들어 있다. 취임선서는 대통령 취임선서의 첫머리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된다.

▷새선장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하며(중앙일보)=인생이나 사회나 국가엔 다 명암이 있다. 진보정권 10년에 한국 사회는 많이 갈라져 있다. 이 대통령은 실

美 대선 ‘개미’들의 반란인가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오바마 현상’



유지호

· 본회 회우
· 서울신문 논설위원
· 외무부대변인 · 예멘대사

오늘 현재 미 대통령 예비경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근소한 차이로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천권을 획득하게 될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미국 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까닭은 그의 민주주의 개혁 주장이 미국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오바마 예비 후보의 경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46세라는 젊음, 흑인 혼혈아로서 컬럼비아-하버드 명문대 출신, 웅변가적 자질 그리고 국민적 회의가 서서히 일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초지일관 반대하였다는 점 등이 인기를 끌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지식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가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 DC에 집중되어 있는 정계의 특수이권단체의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정치행태를 깨부수겠다고 용감히 나섰다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따라서 선거자금은 필요한 악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자유선거는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각종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후보자 선전 그리고 전문적인 광고기획사를 통한 선거전략 수립과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전개가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오바마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는 변호사 자격을 얻자마자 시카고 시내 번두리 지역의 청소년선도를 위한 시민운동에 투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진짜 흑인이 아니라는 악성 비방이 나돌자, 피부 색깔이 약간 더 진한 그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유세장에 나타나 “나는 미국을 사랑하며 남편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버락을 옹호하였다. 시카고 대 부총장(병원담당)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일대 로스쿨 출신에 대해 오바마 부부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이다.

오바마가 직접 실험해서 터득한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을 통한 영향력의 조직화”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여 링컨 대통령을 배출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두번이나 당선되었으며 3년전 연방정부 상원 진출에 성공하였다. 연방 상원의원 초년생인 그가 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조연설자로서 발탁되

먹혀 든 ‘돈 선거’ 혁파 공약

“큰 손들 동작 그만”... 소액헌금 밀물

다른나라 선거행태에도 영향 미칠듯

었다는 그 자체가 선배 민주당 지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난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동북아연구원 공동주최의 학술대회에서, 하버드대 나이 박사는 21세기는 소프트파워(비군사적, 지식, 문화적 연성의 힘)와 하드파워(군사력과 같은 강성의 힘)를 잘 균형 있게 구사하는 데서 생기는 스마트파워가 중요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후의 토론에서, 나이 박사는 열띤 민주당 예비선거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오바마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은 과중한 정치자금을 투입하여 신문 방송매체 선전과 로비스트에 의



· 오바마 돌풍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

존하는 것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을 통해 얻는 영향력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엘라자와 같은 국가연합의 학자들은 17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국민국가라는 모형은 통치 체제로서 경제 과학 분야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까지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정치적 발전의 멈춤이 냉전 시기에 특히 심했다가 1990년 소련 붕괴 조짐이 나타나면서 서유럽의 국가연합은 급류를 탔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국가연합은 포스트 모던주의의 정체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정치는 27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국가연합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통치 방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나이 박사가 말하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잘 믹스하여 스마트파워를 구사하는 정체(政體)와 이라크 전을 계기로 하드파워 위주로 가는 것같이 비쳐지고 있는 현 부시 정부의 정체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오바마 민주당 예비후보가 워싱턴 DC 주변의 이른바 포트맥 지역 예선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을 누르고 위스콘신과 하와이주에서도 압승한 다음, 공화당 공천을 사실상 획득한 매케인이 우리 나라처럼 대통령 선거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게 하지는 그의 제안에 대한 토론을 연거푸 제의하였지만 오바마 쪽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케네디 대통령 이래 여러 가지 개선택이 시도되었다. 그 중 하나가 개인 정치헌금 법적 한도를 미화 \$1,000로 한정시켰던 것이었다. 그 후 시행착오를 거쳐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현재의 \$2,400으로 인상된 것이다.

힐러리 상원의원은 클린턴 집권 8년 동안 남편의 국민적 평판이 성추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여 대통령 출마를 비교적 일찍 결정하고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모금액에 있어서 한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기업이나 로비스트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인임을 간접적으로 힐난하였다. 오바마가 예비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소액의 다수 지지자들로부터 온라인 송금액이 늘어나고 득표와 함께 모금액에서도 힐러리를 능가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예비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비싼 TV 광고에서 경쟁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은 \$500만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힐러리의 고액헌금 지지자들 중에는 \$2,400의 법적 한도액을 소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오바마 현상은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의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고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와의 경쟁에서 금년 11월초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자본주의 하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될 것이다.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현상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고회우 장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우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절차 및 장례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구분) 본회 회우의 장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언론인회 언론인장’으로 한다. 단 유족이 이 규정에 의한 장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장례위원회)

1.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단 및 행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회장은 고인의 친지나 언론사 사우회 회장을 장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나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되고 장례 절차에 관한 업무는 상임이사과 행사집행위원장이 유족대표와 협의 추진한다.
3. 장례위원장은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영결식에 참석하여 조사를 낭독 하는 등 예의를 갖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조사를 낭독케 할 수 있다.
4.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장례절차에 관한 사항
 - (2) 기타 장례와 관련되는 사항

제4조(주무부서)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업무는 상임이사과 행사집행위원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5조(부의)

1. 본회 회장명의로 조화를 증정한다.
2. 영결식장에 본회 명의로 근조현수막을 설치 부착한다.
3. 유가족에게는 본회 후생복지규정에 따른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6조(장례비용) 모든 장례비용은 상을 당한 유족이 부담하며 본회는 장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원거리 지역 장례 지원) 국내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장례시 참석 장례위원 및 임무수행 회우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제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신문시평

“신문? 인터넷서 읽어요”

전혀 새로운 것 없는 풍경이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요즘 신문과 독자의 관계를 피상적으로나마 한번 짚어보자. 머리 아프니 통계나 전문가들의 진단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제외하고 말이다.

신문과 독자의 일차적 만남은 가정이다. 예전에는 아파트 복도나 주택가 대문 근처에 있대서 신문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는 정도로 드문드문 놓여있다. 근년에 발표된 어느 조사가 보여주듯이 가정의 신문구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새벽을 가르며 다니던 배달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만쯤 드물어졌다. 공동배달제가 주원인이지만 신문 보는 가구가 줄어든 것도 큰 이유이다.

지하철은 구독률 저하를 더욱 깊이 실감할 수 있다. 손님이 드물어 가판대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차

다른 데 있지 않다.

혁명이나 변화의 한 가운데 있을 수록, 그리고 관련 당사자일수록 그 변화 속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문인들이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대처하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거론해 보는 것이다.

지난 해 워싱턴 포스트가 자기네 종이신문과 인터넷 판의 차이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고심해서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미국 ABC협회 등 구독자 조사기관들도 종이신문 독자나 인터넷판 방문자를 병합 계산해 광고료 산출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주목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인터넷판 유료로 고집하던 뉴욕타임스가 무료로 바꾼 것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우리 신문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

대문앞 싱싱한 활자냄새는 옛말 독자탓 말고 변화에 맞설 지혜를

내의 가판원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출근길은 무가지로 뒤덮이고 퇴근길도 석간 무가지가 좀 읽히는 정도이다.

신문을 들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 어쩌다 예전처럼 다 읽은 신문을 손에 들거나 옆구리에 끼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그걸 보면 사람이나 신문의 처지가 비슷한 듯해 약간 처량한 느낌이 든다.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도 비슷하다. 먼 길을 나서면서 신문 등 읽을거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이어폰 낀 이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뉴스 욕구가 현저하게 저하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뉴스에 대한 욕구는 인류가 생긴 이래 계속 존재한 사실상의 본능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읽거나 본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상의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신문경영인들이나 종사자들도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을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다. 그건 고사하고 현직 신문인들 가운데는 알고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아직도 과거 신문의 영향력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늙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노인처럼...

독일의 매체 이론가인 노르베르트 볼츠는 “인터넷 정보는 소비위주다. 깊이 있게 세상을 읽는 힘은 앞으로 인쇄매체 몫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라며 신문, 책 등 인쇄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화 사회의 한계를 밝혔다.

이 지적을 그르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신문인들의 깊은 고뇌와 명석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국문]



박 연 호

· 본회 회우
· 국민일보 전 논설위원

방송시평

TV는 지금 ‘개그’ 중인가

금년 설 연휴는 주말과 이어져 꽤 긴 연휴였다. 예년처럼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으로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기도 했고 해외여행객의 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기도 한 연휴였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나 같은 사람들은 TV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TV에서는 특집이니 스페셜이니 하는 프로그램으로 요란을 떨었지만 아이디어나 내용에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 둔 전환기이기도 하지만 MBC는 사장을 새로 뽑아야 하고 KBS는 정연주사장이 노조를 비롯한 내외의 사퇴압력을 받으면서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 방송사의 속성상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의욕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작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그맨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직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오락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차림과 몸짓으로 시청자의 역지웃음을 짜내던 개그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사교양프로그램에 MC로 등장해서 정치를 논하고 사회를 논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시청자들은 헛갈리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오락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 시사교양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개그맨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기있는 몇몇 개그맨은 같은 채널에 아침 저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의 경쟁사 채널에 중복 출연하여 이상한 몸짓, 거친 말투, 황당한 막말을 아무런 여과없이 연출해 내고있다.

재탕삼탕 오락물이 판친 설특집 시사 교양프로도 개그맨들 점령

그런데 더욱 시청자들을 실망시킨 것은 설 특집이라고 내놓은 프로그램들의 상당수가 앙코르니, 스페셜이니 해서 포장만 바꾼 재탕 프로그램들이었다. PD협회가 발간한 PD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연휴 동안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서 방송된 설 특집은 줄잡아 70여편인데 KBS 2와 MBC가 연휴 닷새동안 내보낸 재방송만 각각 17편이다.

그 중의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연휴 첫날인 6일부터 3일간 매일 재방송고 9일 본방송을 포함해서 “무한도전”은 연속 4일이나 방송된 셈이다. 재탕 삼탕 방송도 문제지만 지나친 오락위주의 편성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단 이번 설 연휴의 방송만이 아니라 평상시 방송내용도 개그맨을 주축으로한 연예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듯한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라는 이유로 판을 치고 있다.

방송의 보도, 교양, 오락의 균형 있는 편성이라는 기본정신은 낡은 유물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개그맨의 인기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MBC가 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 자체 분류하고 있는 “이재용·정선희의 기분 좋은 날” (2월 19일 방송), 또한 코너 “폭소만발! 스타, 목욕탕에서 생긴 일”에서는 소위 톱 개그맨이라는 유재석, 박명수 등 5~6명이 러닝셔츠와 팬티차림으로 출연하여 그 중 박명수는 셔츠를 벗기고 발버둥치는 유재석은 강제로 때밀이침대에 눕혀 놓고 마구 비누칠을 해대고 심지어는 팬티에 손을 쑥서 넣는 등 난장판 장면을 13분여나 방송했다.

우리 방송은 언제까지 시청률타령을 하면서 이런 수준의 방송을 계속해야 하는지 방송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방송의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해 본다. [국문]



정 창 기

· 본회 회우
· KBS 전주총국장
· KBS 정책연구실장



집안에서 기 펴고 사는 법

‘집안에서 기 펴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은 남편이 당당한 태도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지금부터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오. 오늘 저녁

식탁엔 최고의 일품요리를 차리시오. 식사가 끝나면 나를 목욕시킨 후 목욕 가운데 대령해야 하오. 이어 손발을 마사지한 다음에 나한테 옷을 입히고 내 머리를 빗겨야겠소.” 그러자 부인이 황당해 하며 대답했다. “웃기시네... 그건 조만간 장의사가 해줄 거야, 이리와!”

崇禮門 참화

是日也放聲大哭... 할 말이 없구나



이구열

· 본회 회우
· 경향·서울신문 문화부장
· 〈한국문화재수난사〉의 저자

1905년 11월 17일 밤. 대한제국 내각의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 오적(五賊) 대신들은 일제가 한국 침탈의 수순으로 외교권 박탈 등이 명시된 을사늑약 체결에 찬동함으로써 망국의 선을 넘었다. 그러자 20일자 황성신문은 주필 양기탁이 그 통탄할 망국조약을 전체 한국인들에게 고발하며 결사적 반대를 선포한 역사적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1면에 실어 전국의 지식인과 유생들의 민족적 국권의식 분출을 촉구했다.

의 선량한 진정을 보여준 것으로 또 하나의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다.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하여 각 정당 대표 등이 모두 그 현장에 와서 침통한 속죄감을 보인 것은 정치적 의례였다고 하더라도 국보 제1호 문화재의 그 비명(非命)사태에 국민을 대표한 숙연한 속죄의 모습이었다. 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런 의례도 보이지 못했는지.

소방대가 최대한으로 출동하여 어이없는 실책도 드러내며 어떻게 진화투쟁을 한 끝에 네시간만에 불길을 잡긴 했으나 이미 완전히 불타버린 숭례문의 허망한 소실은 그것으로 끝장이었다. 세종대왕의 장자 양녕대군의 친필로 전해지는 '崇禮門' 관각현판이 불길 속에서도 소방관들의 빠른 판단으로 황급히 떼어져 지면에 무사히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그런 가운데 그 숭례문의 통탄할 전소 참상은 모든 신문들이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하여 한국의 국가적 수치를 국내외에 알렸으니 그 참회와 뼈아픈 자책감

문화재 깔보고 다닌 우리 모두가 죄인 '아픈 교훈' 잊으면 진정한 贖罪는 없어

그 치욕과 분통의 역사에서 1백년이 지난 엿그제 2월 10일 밤에 우리는 서울 6백년 고도(古都)의 상징적 국보문화재였던 숭례문(남대문)이 땅값 보상 문제로 정부에 반감을 가진 한 분풀이 방화범이 저지른 불길로 2층 목조누각 전체가 참담하게 전소돼버린 북통할 사태를 목격해야 했다. TV의 그 참상 보도화면을 지켜보면서 나는 가슴이 떨리는 심정으로 앞에 양기탁 선생의 그 절규논설을 떠올렸다. 참으로 대성통곡해야 할 참사였기 때문이다.

사태의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숭례문의 참담한 전소는 1백년 전 망국조약의 국민적 절망과 분노를 직설한 신문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의 또 다른 현실상황 앞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큰 죄인이 된 심정을 어찌할 수 없었다. 너나없이 방성대곡해야 할 죄책감에 치를 떨어야 했고, 처참하게 검은 숯덩이가 되어 무너져 버린 숭례문의 형해(形骸)에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길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경황에 맨 먼저 누가 그렇게 나섰던 것인지, 그 형해 앞에 흰 국화를 들고 와 조화로 바치고 속죄의 큰 절로 부복 조상하던 어느 무명 시민의 꾸밈없는 모습이 TV 화면에 나타났던 것은 모든 한국인

은 앞으로의 민족문화재 수호관리를 위한 가일층의 경각과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마한가지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너도나도 한 마디 발언들도 언론에 쏟아졌다.

차제에 문화재청과 관계당국은 지금까지의 목조건축문화재의 화재소실 참사 사례의 진상과 책임 내막을 낱알이 파악한 종합적인 기록출판 보급을 통해 그것이 긴요하게 필요한 관계 관리(官吏)와 소방관 등이 항상 숙지하게 하는 기본문제에 더욱 철저히 힘쓰게 해야 한다. 더 아름답게 원형대로 재건해 내겠다는니, 그렇게 되면 국보 가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느니 하는 책임기관들의 선부른 말들은 현 단계에서 국민의 상심을 더 어지럽힐 따름이다.

이미 역사적 국보문화재로서의 본색을 사실상 상실한 숭례문의 참사를 국민의 마음속에 되살리는 길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국가적 보호책임 기관과 우리의 역사문화 실체의 영광의식 내지 긍지, 그리고 그 존재의 절대적 소중함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그것을 빛나게 물려주어야 하는 참된 책임의식을 생활화하게 하는 시민 교양운동의 확대가 긴요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옮겨 붙은 불

▽ 보험금 타서 모두 모여 회식이나 하고, 모두 사표 쓰고 집에 가서 애나 보쇼! 4,800만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으면 당신들중 누구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죄하며 숭례문 앞에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말요. - 작성자: 서강일

▽ 문화재 그냥 두고 시간 지나면 무너지고, 불나고, 썩고, 없어지고, 그런 것 서서 보는 곳이 문화재청 아 닌니까? 그러니 잘못된 게 없지요. 문화재 그냥 가만 두는 곳이 문화재청입니다. 불났구나. 탔구나. 유지비 안 들어도 되고, 신경 쓸거 하나 줄었고, 새로 지으려면 정부에서 돈타고, 잘못된 게 없어요!!

- 작성자: 노잘못

▽ 물론 화도 나고 담당자들 문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냉철히 대처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둘째, 천천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적이고 명확한 복구를 위한 의견 개진 그리고 수렴을 통한 향후 방안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서기선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숭례문복원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으로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원봉사로 나서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기운이 나네요.

유지비 안들고 신경쓸일 없고... “뭐가 잘못됐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복구계획 세워야

그런 협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감사해요.

- 작성자: 횡팅

▽ 문화재법 제103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재 화재시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국보 1호인 문화재



· '崇禮門' 현판이 화마를 피했다.



· 의연했던 모

화재 진압시 손상을 최소화 하라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문화재법에 화재 발생시 소방관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 작성자: 김시인

▽ 화재 현장에서 불을 잘 못 끈 책임으로 소방관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니... 추운 겨울날씨에

장시간동안
진다는 것
텔레비전
이 숭례문
모습을 보
는 위험한
불을 끄
관은 죄가
무릅쓰고
지 마시고

還生하리, 그리하여 우리들의 빈 가슴 채우리



· 방화로 불타는 국보 1호 송례문 <국민일보>



· 습은 간데없고 처참한 형해만... <국민일보>

안 불 끈다고 고생하신 소방관이 책임을
에 대하여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며칠 전
저녁뉴스에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소방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열심히 불을 끄는
였습니다. 혹시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
상황에서 송례문 안으로 들어가 열심히
면 됐지 뭘 잘 못 했단 말입니까요? 소방
없습니다. 항상 위험한 곳에서 죽음을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한테 원망하
문화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 작성자: 이경희



· 송례문을 애도하는 제사상 앞에서 한 시민이 절을
올리고 있다. <이규섭 화우>

애도! 崇禮門

이제 그 곳이 텅 비었다
그대와 우리 인연이 이제는 끝이 났는가
아니다,
그대 다시 환생하여
이 빈 가슴 채워주기를 겨레의 이름으로
기원하나니,

이 무슨 광란인가
가슴 떨리고 목이 베인다
저 품위 있던 조선의 기왓장이며
귀 반듯하게 날아오르던 추녀가
한 순간 바람이 되어 날아가다니

임진 병자에서 을사 6·25까지 견디어온
겨레의 국보가 재가 되다니
4천만 울분의 가슴에 피가 맺힌다
하늘을 우러러 떠받들며
예를 숭상하던 열의 중심, 국보 1호 남대문이며
한양의 도성 정남쪽 정문이며
머리 숙여 사죄하나니

왜 이리도 허전한지



최금녀

- 본회 회우
- 시인
- 전 대한일보 기자

이 땅 탐내어 북풍들,
그 문으로 염치없이 몰아쳐 왔을 때도
마파람들, 바다건너 치올라 왔을 때도
우리는 그대 얼굴 바라보며 가슴 다독였나니

긋은 일 험한 일로 이 땅이 소란을 피울 때도
절도 있게 타이르며 품위를 지켜주던,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인 남대문.

남산에 등뼈를 기대고 한강 물 달게 마시며
세제를 겨루는 배달의 후손들
좁은 땅 나누어 가지며 오순 도순 모여 살며
손잡고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겨레의 역사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나니

그대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환하게 웃으며
미쁜 가슴으로 싸안아 주며
사람 사는 법도 가르쳐 주던 남대문

아 헛헛하고 허무하여라 삭막하여라
그대 다시 환생하여
이 빈 가슴 채워주기를 겨레의 이름으로
기원하나니.

가는 길 賞春 오는 길 回春

봄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걸음으로 온다. 봄의 리듬은 봄 나물 캐러 나온 아줌마들의 호들갑스러운 웃음처럼 경쾌한 월츠다. 매화와 산수유, 벚꽃이 울긋불긋 꽃 대결을 이루는 남도의 봄을 따라가면 꽃바람 속에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에도 꽃구름이 일며 꽃 멀미가 난다.

남도의 봄꽃축제... 마음에는 꽃구름



이규섭

· 본회 회우
· 시인 · 칼럼니스트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광양 매화축제

전남 구례에서 광양으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 양쪽은 마치 하얀 눈꽃이 매달리기라도 한 듯 탐스러운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을 유혹한다. 백운산 삼박재 기슭의 섬진마을 청매실농원은 매화꽃으로 뒤덮여 눈이 부시다.

일찍 피어나는 올매화, 늦게 피는 념매화, 60년 노목도 뒤질세라 솜사탕만한 꽃송이를 뽐낸다. 발과 발 사이로 매화가 터널을 이루고 파랗게 자

발과 발사이 “어느새 꽃터널 생겼네”

란 청보리와 어우러져 봄의 제전을 펼친다. 마당에 놓인 2,000개가 넘는 장독대에서는 매실된장, 매실장아찌가 익어간다. 섬진강 푸른 물과 하얀 모래사장, 녹색의 대나무 숲이 삼색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강변 수채화를 펼쳐놓는다. 3월 8일부터 16일까지 다압면 일원에서 광양 매화축제가 열린다.

←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의 벚꽃 길



▲ 구례 산수유꽃축제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남원을 경유, 남원에서 19번 국도를 갈아타고 밤재 터널을 빠져나오면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는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이다. 앞 보다 먼저 목을 내민 산수유가 꽃물결을 이

하늘에서 노란 물감이 쏟아져 내린듯

뤄 마을과 계곡에 노란 물감을 뿌려 놓았다. 구례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도 많고 품질도 우수하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는 200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는다.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지구 일원에서 다양한 축제를 펼친다.

구례 산동면 상위마을 계곡에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꽃(구례군청 제공) →



▲ 화개장터 십리벚꽃축제

광양 다압면에서 바다를 보이는 섬진강 건너편은 ‘영·호남이 어우러지는 화개장터’. 남도대교가 놓여 오가는 길이 편해졌다. ‘난장’이 열리는 탐리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십리 벚꽃 길’은 꽃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꽃향기에 약수 한잔이면 신바람 절로

“굽이굽이 펼쳐진 물과 돌과 장려한 풍경은 언제 보아도 길 멀미가 나지 않는다”는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다. 십리 벚꽃 길 끝머리 화개천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화개약수는 ‘물 속의 물’로 불리는 약수. 눈여겨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맞은편은 우리 나라 차 시배지인 화개녹차밭이 연초록 바다를 이룬다. 3월 중순부터 앞다투어 피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 초에 벚꽃축제가 열린다.

← 하동 화개장터 십리벚꽃길



5 · 16 전야

(下)



그 날, 5 · 16 전야 밤의 일이다.
1961년 5월 16일이니,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의 일인가.
웬, 독자들에게 대한 ‘충성서비스’였는지, 신문마다 조석간(朝夕刊)을 발행할 때다.
석간이 나오고 나면, 자장면 한 그릇 먹을까 말까 하고, 이내 조간 마감에 들어가야 했다. 정월 초하루도 신문을 냈으니 말이다.

“한강다리서 我軍끼리 총격전이”

사회부장 자리는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다. 석간뉴스, 조간뉴스, 사건과 뉴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쑤였다. 조간 마감은 대개 밤 12시쯤 끝난다.
그 날 야근은 사회부 서병현(徐炳鉉)이었다.
야근기자(夜勤記者)는 마감 후의 사건들을 책임져야 한다. 밤새 경찰서와 주요 사건 취재처(이들테면 화재발생 상황 등)를 취재하고 이상이 없을 때 데스크에 보고하고 퇴근하게 되어있다. 서 기자의 집은 흑석동에 있었다.

그 날 새벽, 내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 잠시 눈을 붙였을까 말까 했을 때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때렸다. 사실, 이럴 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 이 한밤중에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는가. 골치 아픈 전화임엔 틀림이 없다.

“부장님 큰 일 났습니다.” 서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다. “퇴근하려고 한강 북쪽 파출소에 와있는 데...지금 헌병들과 한강을 건너오는 해병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야단났습니다. 이거 우찌가예(신문 인쇄판 바꾸기의 일본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급했던 서 기자의 이야기는 대충 이랬다.
북한강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진을 치고 있던 헌병대의 제지를 받았고, 이어서 남쪽에서 한강을 건너 밀고 들어오는 해병대와 대치하게 되었다. 헌병대는 통과하지 못한다고 강력 제지했고, 해병대는 총을 쏘면서 진군(進軍)하려 했다. 급기야 쌍방 총격전이 벌어졌고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나중에 알려졌다지만, 한강을 건너 도심을 향해 진군한 해병대는 혁명군(革命軍)이었고, 강 북쪽에 진을 친 헌병대는 관구소속 부대였다.

잠시 후 서 기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지금 막 용산경찰서까지 후퇴해 왔는데, 해병대가 경찰서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또 일부는 육군본부 쪽으로 가고요...”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보고도 했다.

야근기자 전화에 새벽잠 화들짝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모양새인가...’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서 기자가 아닌 앞집에 사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한기찬(韓基燦)형이었다. 한 형은 그 때 동대문구 용두동 ICA주택에, 나와 한 울타리를 이루어 앞뒷집에서 살고 있었다.

“김형, 지금 라디오 듣고 있소?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소.”

라디오를 부랴부랴 켜니, KBS 박종세(朴鍾世)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나오고 있었다. 혁명공약(革命公約)낭독이었다.

겨우겨우 민주화세력으로 정권을 이루어 놓은 장면(張勉)정부가 무너져 내리는 조종(弔鐘)이었다.

5월 16일 새벽 5시 지나. 한 형과 나는 아침결이라 제법 쌀쌀한 날씨를 뚫고 집을 나섰다. 신문사의 차도 나올 수 없었다. 우리는 터벅터벅, 동대문까지 걸었다.

벌써 길에는 전차부대(戰車部隊)가 포신을 치켜세



· 5 · 16당시의 박정희 소장.

“큰일 났어요” 다급한 목소리 라디오는 ‘혁명공약’ 쓰나미

위 삼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야포부대도 있었다. 야포부대는 북 · 동쪽에서 내려온 모양이었다.

우리는 종로를 지나, 광화문 못미처 청계천에서 헤어졌다. 한 형은 동아일보사로, 나는 소공동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일단의 군인들 편집국 난입

신문사 편집국에 들어서자 살벌한 분위기. 누구의 얼굴에서도 웃음기는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단 밟는 소리가 요란스레 나더니, 일단의 군인들이 들어닥쳤다.

“높은 놈들 다 어디 갔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박창암(朴蒼岩) 대령이었다. 앞으로 나서는 내 가슴에 권총을 들이댔다. 섬뜩했다. “우리는 혁명에 성공했다 말이야. OXJEL...” 억센 함경도 사투리로 한참 지껄이더니 부하들을 이끌고 편집국을 빠져나갔다. 편집국장 과 부국장은 마침 자리에 없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쁜 날이었다.

그 날, 신문의 사회면 톱(머릿기사)은 서 기자의 체험담과 목격담을 묶어 5 · 16전야의 르포로 장식했다.
현석호(玄錫虎) 내무장관, 조재천(曹在千) 법무장관, 김영선(金永善) 재무장관 등이 줄줄이 붙잡혀 갔다. 장면 총리는 칼멜수도원으로 잠적해 버리고...

1979년 10월 26일까지 장장 16년간 박정희 시대(朴正熙 時代)를 여는 첫날이었다. 군사 쿠데타는 그렇게 여처구니없이 끝났다.

京鄕에 대한 추억과 낙수는 다양하다. 즐거움과 낭만이 있었는가 하면, 뼈아프고 곤비(困憊)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우선 ‘경향신문 폐간 사건’이 있지 않은가.

당대 최다부수를 자랑하는 야당지 경향, 집권 자유당의 시선이 고을 리가 없었다. 비위에 거슬리는 1단 짜리 기사라도 나가면 성가시게 굴었다.

희비가 엇갈렸던 小公洞 시절

결국 1959년 4월 30일 저녁, 정부 공보실(실장 全聖天)은 ‘군정법령 88호’를 적용, 경향신문에 대해 폐간 명령을 내렸다.

장장 361일간의 폐간이었다. 그것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 · 19가 있었기에 복간이 가능했다. 소공동(小公洞-경향신문이 있던 곳)의 암울한 시기였다.

소공동의 검은 그림자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당시 경향신문 운영자(李俊九 사장 · 金光涉 편집국장)와 오너인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盧基南 대주교)와의 날선 일력으로 신문

사 경영자가 오너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신문을 하루 발행하지 않은 한국언론 사상 최악의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한국언론사의 찢지 못할 치부였다. (이 사실은 계속 숨겨져 있다가 시인 李容相이 쓴 ‘용금옥시대’에서 시인 具常 씨를 떠올리며 잠시 언급한바 있다.)

하나 또 코믹한 이야기가 있다.
당시 경향신문은 당대 최다 부수, 최고의 보수를 자랑하던 공지의 시절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문사의 엄명이 내려졌다.
‘출입처에서 촌지(寸志)를 받지 말라.’ 지금은 모르겠으나 당시는 출입처에서 장관이 새로 취임하거나 명절같은 때 약간의 용돈이 나오곤 했다. 경향신문 기자는 이 촌지를 거부하라는 사명(社命)이었다.

언론계 정화를 위한 선두 조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 언론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편집국에서 내려다보이는 조선호텔(옛 건물) 앞마당의 목련화 세 그루가 활짝 꽃을 피울 때면, 그렇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2008년도 신문사진 ‘인간에 상’ 작품 공모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2008년도 신문사진 ‘인간에 상’ 시상을 위한 후보작품을 공모합니다. ‘인간에 상’은 신문 사진기자들의 올바른 도덕관 정립과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존각을 다 투며 취재 현장에서 활약하는 신문 사진기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 응모 요령 —

- | | |
|--|--|
| 1. 공모대상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국내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진 작품 | 스센터 1405호(대한언론인회 ‘인간에 상’ 심사 위원회) |
| 2. 자격요건 : ‘인간에’가 넘치는 사진 작품 | 6. 심사 및 수상자 발표 : 심사 후 개별 통지함 |
| 3. 구비서류 : 작품(5×7)과 게재된 신문 1부 | 7. 시상일정 : 신문의 날(4월 7일)을 기념하여 4월 4일 오후 2시 |
| 4. 출품기간 : 2008년 3월 1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 8. 시상장소 : 본회 사무실 |
| 5. 접 수 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 | |

2007년 3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회 장 조 창 화

chosun.com

영준이 집에 우렁각시가 다녀갔습니다

집에 천사들이 다녀갔나 봅니다.
어지럽던 방안은 먼지하나 없어졌습니다.
부엌엔 된장찌개가 끓여져 있고
냉장고 속엔 우유랑 과일이 가득합니다.
마법처럼 영준이를 황홀하게 만든 주인공은
로레알코리아 우렁각시 이경아씨였습니다.

혼자사는 아이들과
이들을 돕는 우렁각시를 이어주는 일,
조선일보 우리이웃 네트워크입니다.

신문이 노력하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주는 신문

조선일보

소년 소녀 가장을 대신해 집 청소와 음식을 해주시는 우렁각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 우리이웃 네트워크 참여 문의:nanum.chosun.com 또는 전담 취재팀 02-724-5285~6으로 전화

줄서야 먹는 식당 (中)

냉면 · 빈대떡 · 만두 · 칼국수



이 철

· 미주 한국일보 고문

냉면

서울에서 냉면집 하면 우선 네 곳을 꼽습니다. 대한극장 옆 '필동면옥', 을지로3가 '을지면옥', 을지로6가 '평양면옥', '오장동 함흥냉면'입니다. 이 가운데 줄서서 먹는 집은 '을지면옥' (02-2274-6863)과 '함흥냉면' (02-2267-9500)입니다.

그런데 맛으로 따지면 '필동면옥' (02-2266-2611)인 것 같은데 이 집은 만원이지만 줄을 설 정도는 아닙니다.

을지면옥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오른쪽입니다. 을지로 3가와 단성사 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동국대학 뒷문에 있는 필동면옥은 메밀냄새가 진하면서 면발이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머니가 약간 무뎡뎡하지만 맛이 커버해 줍니다. 평양면옥은 소문은 났는데 가서 먹어보면 별로입니다.

함흥냉면은 기가 막힙니다. 줄서 있는데 돈을 미리 받아가고 어떤 때는 먹고 있는 사람 뒤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장동에 가면 함흥냉면 집이 세 개가 나란히 붙어있어 어느 집에 들어갈까 망설여지는데 가운데의 '오장동 함흥냉면' (건물이 제일 근사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냉면이 아니라 비빔냉면입니다. 이 집 면발이 가장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양쪽 옆집도 괜찮은 편이지만 이 집은 못 당합니다.

아리송하게 줄서야 하는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로1가 종각 네거리에는 한일관(02-732-3735)입니다. 평양식이라 평안도 출신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원래 비빔밥, 만두국, 한정식으로 유명한데 냉면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 냉면명소로 인정해주어야 할지말지 아리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점심시간에는 줄서야 합니다. 맛있는 냉면집입니다.

빈대떡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누가 뭐 먹고 싶냐고 해서 "빈대떡 잘 하는 집에 갑시다" 했더니 교보빌딩 뒤 '청일집'을 추천했는데, 이 집이나 철도집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녹두를 좀 아끼는지 맛이 약간 못했습니다.

빈대떡은 종로5가 광장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젊은 아줌마들이 "우리 빈대떡 맛보세요!"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맛본 다음에는 미안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사이렌 해협을 지나는 오디세이우스처럼 귀를 막고 인정사정없이 10m쯤 더 가면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라"하는 식으로 버티고 앉아 빈대떡을



· 냉면 · 빈대떡

냉면 필동 · 을지로 · 오장동 등 소문만큼 맛도 최고

광장시장안 '무뎡뎡한 아줌마 집'을 찾아야 빈대떡

만두 명동에 가면...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집이

강남 도산사거리 · 신사동에 군계일학 명가가 칼국수

굽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히트는 혼자 빈대떡을 굽는데 뒤에는 엄연히 '황해도 원조 빈대떡집'이라는 조그만 사인 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샘플 서비스도 없고 되게 무뎡뎡한데 빈대떡 맛은 일품입니다.

그 자리에서 녹두를 갈아 만드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겨우 8개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양파간장에 찍어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맛기가 막힙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자리에서만 40년간 빈대떡만 부치는 포순이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배짱입니다. 광장시장 터줏대감에 속합니다.

이 집 말고 그 옆에 '순이네'라는 빈대떡 집도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지난 회에서 언급한 생태탕 '서울집'도 인근에 있으니 빈대떡 하나 먹은 다음 그리로 향하면 안성맞춤입니다. '서울집' 아줌마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내가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생선 칼 들고 옆에서 있으니 조심 하시도록.

만두 · 칼국수

제가 평소 서울의 식당에 대해 지녀온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서울에는 '명동 칼국수'가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네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으로 쓰는 것은 상표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 칼국수가 수없이 많은 모양입니다.

같은 이름의 식당이 하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정작 명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는 '명동 교자'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칼국수 잘 하는 집이 너무 많이 생겨나 만두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만두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두를 먹으면서 칼국수를 사이드로 먹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트를 했습니다. '명동교자' (02-776-5348)는 손님이 너무 많아 점심은 물론 저녁에도 줄서야 합니다. 만두 맛이 일품입니다.

명동 성당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 골목길에 있는 것이 1호점이고 더 올라가면 왼쪽에 '명동 교자'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본점입니다. 두 군데 모두 줄서야 합니다. 이들 식당의 특징은 서울의 젊은 멋쟁이가 끼가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객 아가씨들도 많이 옵니다. 히트는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테이블이 있는데 식탁에

얼굴 가리게 담벼락(?)을 쌓아 놓아 앞 사람의 머리카락만 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마늘이 많이 들어간 김치가 이 집의 명물이랍니다.

손님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 술은 일절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자마자 웨이트리스가 쫓아와서 "7천원이에요" 하며 현금으로 미리 받아 갑니다.

좌우간 '명동 칼국수'에서 '명동 교자'로 탈바꿈한 이 식당은 명동 제일의 명물로 올라섰습니다.

칼국수 잘하는 집은 서울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칼국수로 줄서는 집은 강남의 도산 사거리(관세 무역회관에 있는 '한성 칼국수' (02-544-0540)입니다. 칼국수뿐만 아니라 만두국, 삼겹살 등 모든 메뉴가 정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신사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 (02-515-2122)인데 중국 스타일의 '명동 교자'와는 달리 평양식 왕만두와 만두전골로 줄을 섭니다. 지하철 압구정역 4번 출구 근처.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키우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조기달성을 위해 은행이 앞서 달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계강국들의 경쟁력은 금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 - 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선진국을 앞당기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악회 소식



북한산에서 2008시산제

본회산악회 회우 30여명 참석

새회장엔 안종우 이사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2월 23일(토) 북한산 능선에서 2008시산제 및 임시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안종우 본회 이사(사진)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우 3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으며 부회장에 강진형이사, 고문에는 이구열, 김영효 회우를 선임했다.

신임 안회장은 연합뉴스 편집부국장, 전무국장,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본회 사이버위원장을 지냈다.

요즘...



회우 동경

· 이구열(李龜烈) 회우(미술평론가)= 전북 부안 출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지운 김철수(1893-1986)선생의 서예병풍을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했다.

言論街

관훈클럽, 출판지원 대상자 선정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은 21일 올해 상반기 언론인 저술 출판지원 대상자로

본회日誌 (2월)

- 4일 = 문화관광부 본회 정관변경 승인
- 7일 = 설
- 18일 = 자격심사위원회
- 21일 = 제116차 이사회
- 22일 = 편집회의

연합뉴스 류현성 정보과학부 부장대우 등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상자와 주제. ▲이재경(경향신문 교열팀 팀장) = 기자들도 자주 틀리는 우리말 ▲이기진(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자(Thirty minutes a week) ▲노주석(서울신문 지방자치부 부장급) =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찾은 대한제국 비사 ▲조성관(조선일보 주간조선 편집위원) = 프라하가 사랑한 천재들 ▲최정동(중앙일보 사진부 부장대우) = 로마제국을 가다 (2) ▲서병기(헤럴드경제 엔터테인먼트팀장) = 예능 MC와 리더십 ▲류현성

우리가족 만세

孫一根 회우 3남 孫勳 교수

‘젊은 과학자상’ 수상



손일근(경원대 초빙교수·서울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얼굴 사진) 회우의 3남인 손훈(孫勳) 교수가 이색적인 분야의 연구로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

손 교수는 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결함을 감지하는 구조물 안전진단(Structural health monitoring)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손훈 교수는 안전진단과 결함감지에 필수



‘젊은과학자상’을 받는 손훈(右)교수. 그 옆은 어머니.

(reference-free)손상감지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국제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교량 등 지상의 구조물만이 아니라 항공구조물

구조물 안전진단 새 기법... “신부감 어디 없어요”

적인 손상감지알고리즘(damage detection algorithms), 스마트센서(Smart Sensors), 무선신호 및 전력공급(wireless data and power transmission)분야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쌓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는 초기상태에서 얻은 신호(baseline signals)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서 계측한 신호만을 가지고 손상을 찾아 낼 수 있는 무기지

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한다.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케네디 펠론대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KAIST대 부교수로 부임한 손 교수는 13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 결혼할 겨를이 없었다.

손일근 회우는 이번 수상도 기쁘지만 더 반가운 상은 빨리 좋은 신부를 찾아 손자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연합뉴스 정보과학부 부장대우) = 정보통신 인물·기업 열전 ▲이지원(SBS 제작본부 예능국 프로듀서) = 이 피디의 뮤지컬 이야기 ▲김호일(부산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 부산국제영화제 대해부 ▲손태규(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왜 언론자유인가?

〈연합〉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권대웅 김규문 김남술 김세경 김영택 김재근 김종현 김충수 김한봉 김 호 노영순 노철용 박권환 박범진 박재권 손일근 송호창 윤익한 위상욱 이민희 이선희 이용권 이종윤 이창열 조덕연 주영관 최금녀 최귀조 최원각 한영섭 홍순일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자녀결혼

축하합니다

· 김춘빈(金春彬) 회우 장녀 은조양= 3월 15일(토)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2가 영락교회 ☎011-9770-1781

· 바로잡기 : 지난 호 8~9면 〈書舍餘話〉① 란 본문중 첫단 아홉째 줄의 ‘우주의 충정’은 ‘우국의 충정’의 오타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아쉬우면서도 뿌듯한 느낌!

회보 주간을 그만 두며 - 맹태균

“시원섭섭하겠네?” 내가 회보 주간을 그만 둔다니까 평소 가까이 지내던 C회우가 술좌석에서 위로(?)삼아 나에게 던진 말이다. 딱히 부인하고 싶지 않다. ‘아쉬우면서도 뿌듯한 느낌’이라면.

한편으로는 가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는 뜻의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손을 뗐을 때 자주 하는 이야기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야릇한 회색의 감정. 솔직히 시원하다고 하면서도 섭섭한 마음 또한 한편에는 있다. 그게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보니 내가 대한언론인회보 제작 책임을 맡은 지 2년 5개월(2005년 10월호~2008년 2월호, 총 29호). 정이 들대로 들었다.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지만 능력의 한계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녹슬지 않은 펜 끝에 깊은 경륜과 오랜 연륜이 덧씌워진 회우들의 글과 모습! 그런 내용이 담긴 대한언론인회보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래도 자평한다면 자화자찬 같지만 대한언론인회보를 언론인회보답게 체재와 내용을 혁신했다는 자긍심을 갖는다. 특히 이데올로기 혼란시대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은 누가 뭐래도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다.

어떤 회우는 회보의 논조가 너무 ‘보수적’이고 필진 또한 보수논객 일변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나는 우리 회보가 지향하는 건강한 보수성 논지는 그게 ‘보수꼴통’이 아니고 바로 정론(正論)이라는 소신을 펴고 싶었다.

또한 평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빛이 있었다. 유신시대 자유언론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동료, 후배들과 함께 동참 못한 빛이었다. 하나, 세상은



바뀌어 보상받은 그들은 울곤왔던 그 시절 초심을 잃었다.

게다가 그들이 떠받든 좌과정권은 되레 자유언론의 정신을 훼손하는 등 우리를 실망시켰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그 비판역할의 일역을 대한언론인회보가 맡았다. 물론 한 개인의 뜻이라기보다 회우들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고 정계를 퇴장한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에 비유하긴 맞지만 나 역시 그 비슷한 심정으로 대한언론인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아니 그 이전에 “대한언론인회에서 나의 소임은 끝났다”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동안 꼼꼼한 총 데스크 제재형 전임 회장과 든든한 만형 같은 김광희 부회장, 그리고 대한언론인회사(史)와 보학(譜學)에 밝으신 이해복 신우식 고문 등 회보제작에 훈수를 해주시며 힘을 보태주신 회우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무튼 아쉬우면서도 뿌듯한 느낌으로 미련을 접는다.



*"In my life,
I have many choices."*


Millennium Seoul Hilton

395, 5-ga, Namdaemun-ro, Chung-gu, Seoul, Korea 100-676 C.P.O. BOX 7692 Tel : +82.2.753.7788 Fax : +82.2.317.3273 <http://www.millenniumseoulhilton.co.kr>



당신이 비를 보며 추억을 떠올릴 때, 누군가는 비를 보며 지붕을 걱정해야 합니다

집문제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가 꿈꾸는 **휴먼시아**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휴먼시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드립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무주택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드립니다



Humansia(휴먼시아)는 Human(인간, 인류)과 sia(넓은 대지, 공간)의 합성어입니다.
휴먼시아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주거공간을 창출해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주택공사의 도시브랜드입니다.